

### 리레이 수명일기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운 일 중 하나는 '아이들에게 화 내지 않기'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화났을 때 웃어주고 안아주기'이다. 속에서 울컥 솟아오르는 화를 밖으로 내지르지 않는 것도 어렵는데 웃거나 안아주기까지 하려면 몇 단계 마음의 평화과정을 거쳐야 한다. 내가 지금 왜 화가 나는 걸까. 이 화는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걸까. 감정을 미분해 본다. 그래서 난 아이 키우는 것이 참 좋은 마음 공부의 과정이라 생각한다.

박명숙

前 '다음'을 지키는 엄마모임' 회장



나는 아들 삼 형제를 키우고 있다. 한창 말썽을 피우는 여섯 살짜기 큰 아들, 또래 아이들보다 활동적이고 명랑한 그 애는 늘 다른 애들보다 수선스럽다. 그런 형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아 하는 행동마다 똑같이 따라하는 녀 살 바기 들때, 그리고 이제 일곱 달이 되어 가는 셋째가 막내. 아이들과 오글오글 거리며 하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나 자신을 비추어보아, 나의 삶을 수정하는 '문사수(聞思修) 수행'에서는 법회활동과 일상생활 모두가 정진의 과정이다. 5일 문사수법회 고양법당 회원들이 경전 법회를 마친 후 발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불경 가운데 화엄경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경전이라고 말하지만, 초대 역경원장을 지낸 운허 스님은 화엄경을 읽으려면 세 살바기 아기의 마음으로 보라고 했습니다."

5일 오전 경기 고양시 도심에 자리한 문사수법회(회장 한갑스님) 고양법당 이날 개강한 '화엄경으로 배우는 불교' 첫 시간에 김태영 법사는 "부처님께서는 왕으로부터 살인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알아들도록 쉽게 법문했다"며 "정진은 어렵다"는 선언을 버릴 것을 먼저 주문한다. 두 시간 내 내 진행된 강의 역시 화엄경이 성립된 문화사적 배경과 깨달음의 보편성, 실천을 강조하는 대중불교운동의 맥락을 실생활과 연결시켜 쉽고도 재미있게 진행했다.

평일일에도 시종일관 진지하게 강의 들는 30~40대의 20여 불자들이, 교사 강사, 대학생, 주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졌지만 배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하나다. 이들은 부처님 말씀에 단호히 "좋은 말씀"의 차원을 넘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으로 받아들이고 경전 공부를 통해 비운 바를 삶 가운데 적용시키려고 노력한다.

이날 수강생 중 최고령인 이기원(81, 고양시 원당동) 씨는 "문사수법회의 공부는 부처님 가르침을 공허한 지식을 채우는 일로 여기지 않는다. 실생활에서 참나를 구현하는 데 묘미가 있다"고 자랑한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聞), 나 자신을

기도 하다. 문사수법회의 모태가 된 경전법회에서는 깊이 있는 경전 강독을 통해 부처님 말씀을 실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대입, 불법이 저절로 삶 속에 녹아들도록 한다. 또한 지도법사와 갖는 일대일 '상담'은 생활 속 수행과정에서 현실과 부딪치는 문제를 내가 변하면 세계가 변한다'는 입장에서 접근한다. 참회와 정진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 실생활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신앙을 떠나 일상 자체가 견전해지지 않을 수 없다. 여름과 겨울에 실시하는 정기수련회를 통해서 는 수행의 깊이를 점검하는 한편 새로운 삶의 활력을 얻는다.

### 주제가 있는 수행현장

### 문사수법회의 '정토로 가는 길'

### 끊임없이 자신 개혁하고 '진리에 부응하는 삶이 수행'

문사수법회 김태영 법사



"부처님께서는 중생 교화의 방편으로 설법을 택하셨어요. 불제자는 질박한 심정으로 '여시아문(如是我聞)'으로 시작되는 경전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으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문사수법회의 여여 김태영(46) 상임법사는 "불교란 관념적 사상체계가 아니라 궁극적인 삶의 원리"라며, 법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것을 나의 삶에 비추고 끊임없이 자신을 개혁해 나가는 과정이 수행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오로지 참선과 위빠사나처럼 특정한 수행을 하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라 경전이나 염불 참회 정진 등 다양한 방편들이 모두 소중한 수행의 방편이라는 것이다. 깨달음 지상주의나 허위위식, 현실을 동진 신비주의적 미신 불교, 상업주의적 포교 등 불교 담지 않은 수행풍토에 물들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의 근간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참불자의 수행이라는 확고한 신념에 바탕을 둔 생각이다.

문사수법회의 법회와식과 경전강독이 대부분 한글로 진행되는 것도,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의 삶과 공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부처님께서 그 시대의 언어로 설법하셨듯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 "수행은 방법론이 아니라 끊임없는 참생명의 요구에 부응하는 삶 자체"라는 김 법사는 "나부터 진리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수행"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 "'불교 어렵다' 생각 버리세요"

### 현실 속 주인 노릇하는 참된 삶 추구

### 1988년 시작, 1500여 회원 공동체 지향

비추어보아(思), 나의 삶을 수정함으로써(修) 정토에 이르는 길'이란 뜻을 가진 문사수법회(www.munsasu.org)의 회원들. 이처럼 법회에 참석해 '문사수(聞思修)'를 닦는 불자들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삶이 조금씩 변화돼 가고 있음을 느낀다.

문사수법회의 특징은 경전 공부와 나무아미타불 염불정진을 중요시하지만 딱히 하나의 방편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 대중법회, 공개강좌, 경전법회, 정기수련회, 상담 등을 통해 현실 속에서 주인이 주인 노릇하는 참된 삶을 살 것을 강조한다. 결국 두 사람 이상이 만나서 법을 나누는 이러한 법회활동 자체가 수행방편인 셈이다.

문사수의 가장 중심이 되는 '대중법회'는 대중들과 함께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자신의 참생명이 부처님 생명을 믿고 따를 것을 다짐하는 모임이다. 법우들과의 법담 속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정진과 전법의 사명감을 재삼 확인하는 시간이

문사수법회의 운영 원칙은 회원 스님과 4명의 법사를 비롯해 회원 누구나 평등한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모든 불자들은 이미 깨달아 있는 부처' 이자 법을 배우는 도반이기 때문이다. 청소에서 설거지까지 사소한 일도 남에게 따르 없으며, '거사'나 '보살'이라는 일반화된 명칭 대신 모두 '법우(法友)'로 부르고 있다. 생활 속에서도 남뿐 아니라 아내, 그리고 자녀나 이웃들까지도 부처님처럼 섬기는 것을 습관화하기 위해서다.

지난 1988년 경전공부를 시작으로 법회를 연 문사수법회는 현재 1500여 회원들이 담양 정토사(정진원)를 비롯해 고양, 대구, 대전, 계통, 이천법당 등에서 법회를 열고 있다. 고양법당=031)972-3581, 대전법당=(042)485-8111, 담양 정진원=(061)381-0108, 이천법당=031)636-4418, 계통법당=(042)841-3820, 대구법당=(017)341-3828

김재경 기자 iglem@buddhania.com

### 법륜스님 강연 듣고 나의 실상 발견

### 오늘에 충실한 삶이 불제자의 길

루를 지내다 보면 언성 높아질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 흔히 주변에서 말한다. 아들 형제 키우다 보면 엄마가 강박이 된다고. 그럼 삼 형제 키우는 엄마는 조폭이 되나? - 그러나 난 오히려 삼 형제와의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마련한 4대 성인 중의 한 분으로만 알고 있던 부처님을 마음의 스승으로 모시게 된 것은 남편을 통해서였다. 결혼하기 전, 지금의 남편은 부처님의 일생에 대해, 그리고 가르침에 대해 홀리듯이, 때로는 자세히 이야기 해주고는 했다. 늘 눈앞에 닥친 문제에만 허덕거리며 살아온 나는, 마음을 바꾸면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지고 점차 관심을 갖고 듣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 인연 맺게 된 법륜스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인생의 방향도, 목적도 없이,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중요하지조차 모른 채 그저 허둥대기만 하며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쫓

그 때부터 삶에 대해 보다 진지해 질수 있었다. 삶이 곧 수행이고 현재 발 딛고 있는 자리에서 제대로 사는 것이 부처님 제자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활동하고 있는 '다음'을 지키는 엄마모임'에서는 어른들의 욕심으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생명보다 물질이 우선인 사고 때문에 생존권이 위협받고,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험한 먹거리들과, 유해 화학물질의 만연, 점차 심해져 가는 타전의 오염으로부터 아이들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모이고 있다. 비단 내 아이, 우리나라의 아이들 뿐 아니라, 먼 나라, 이웃나라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보다 행복해 지기를 꿈꾸면서.

\*다음 주 필자 노귀남 씨는 불교포럼 실행위원장(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사회 속에 실현하기 위해 참여불교운동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

### 수행 캘린더

- 해운정사 '토요 용맹정진' =부산 해운정사(www.seon.or.kr)는 매주 토요일 오후 8시-일요일 새벽 3시 선원에서 '토요 용맹정진'을 실시한다. (051)746-4812
- 일요 참선수련 =서울 화계사 수선회는 매주 일요일 오후 1시30분 대적광전에서 일요 참선법회를 열고 있다. 화계사 선우회는 매주 토요일 저녁 9시-일요일 새벽 3시 국

- 제선원 4층 법당에서 영어로 진행하는 토요 참선법회를 열고 있다. (02)900-4326
- 아나파나 호흡 특강 =서울 위빠사나선원은 매주 일요일 오후 2-7시 김연철 법사의 '아나파나 호흡 특강'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인환 스님의 '인도철학 및 불교사'를, 매주 수요일 오후 3-7시 임승택 법사의 '위빠사나' 강좌를 연다. 선정(禪苑) 기본호흡, 체조, 위빠사나 기초도 지도한다. (02)739-8992

- 월정사 주말 수련회=강원도 진부 월정사는 매달 셋째 금-일요일 1박2일 또는 2박3일의 주말수련회를 연다. (033)332-6664
- 천태사교의 강의 및 철야정진 =연산법사사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법화삼부경 강의(이명자 박사), 오후 3시30분 천태사교의 강의(지창규 박사를 연다.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철야정진도 한다. (02)762-4922
- 동사법회=전북 정수 명상의

- 집(www.dongsasub.org)은 12월 23일 오후3시부터 28일 오후4시까지 충남 논산 삼동원에서 제174회 동사법회를 연다. 귀신사 회주 용타 스님이 지도한다. (069)351-5125
- 화두선 교구=수선회(www.zen.or.kr)는 11월 20일 화두의 중요성, 27일 화두 참구법에 대해 교육한다. (02)732-5960
- 위빠사나 정기수련 = 위빠사나 수행가이드 카페(vipassana.buddhism.org)는 12월 15일부터 21일 까지 7일간 천안 호두마을에서 위

- 빠사나 정기수련회를 연다. 호두마을 정원 상임지도법사가 지도. 참가 신청 E-mail: metta4u@hanmail.net
- 목요명상=서울 강남 여성인력개발센터는 11월 14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5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우리빌딩 3층에서 '목요명상(위빠사나 수행)'을 실시한다. 지도는 묘원 법사. (02)3462-4932
- 대홍사 '열린 수련회' =대홍사는 매달 1·3째 금-일요일 1박2일 또는 2박3일 과정의 '열린 수련회'를 갖는다. (061)534-5502

# 이무귀꼬

선불교의 대표적인 화두 중의 하나, 무엇이든지 '이무귀'란 질문을 계속하면 마음의 본래 모습을 알아차리게 된다. 이무귀

## 몽롱한 세상에 벼락처럼 내리치는 큰스님의 장군죽비

마음을 바로세우는 깨달음과 지혜의 정수를 담은 성철큰스님의 금쪽같은 말씀 모음집

눈 감은 사람이 어떻게 바로 걸을 수 있었는가? 먼지 얇은 거울이 어떻게 사물을 바로 비출 수 있었는가? 항상 마음의 눈을 뜨고 자기를 바로 보라고 하셨던 큰스님의 가르침은 혼란스런 세상 살이에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온다.

退翁 **성철** 말씀 | 원택 역음 | 값 8,500원

시자의 눈으로 바라본 우리시대의 큰스님

### 성철스님 시봉이야기 1.2

서울무문 기가와 고집으로 알려진 한국선불교의 거목 성철큰스님의 덕업이 따듯하고 인간적인 모습, 20년간 그분은 모든 권력스님의 눈속 통해 미처 알려지지 않았던 큰스님의 모습을 세상에 만났다. 원택 저 | 값 8,500원

TEL: 02)741-1990 www.gimyoung.com